

“사람 없는데 어떻게 장사 하라고...”

푸드트럭, 인근 상점과 갈등 영업장소 제한 불만 광주시 “상권·통행 고려 구역 지정...지원 최선”

“현재 지정된 푸드트럭 구역은 사람 통행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푸드트럭 창업자들이 인적이 뜸한 지역을 영업장소로 묶어 놓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영업허용지역이 엄격히 제한된 데다 불법 노점상과 인근 상점과의 갈등·경쟁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폐업의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와 5개 구청 등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지난 2016년 광주시의회 등에서 제정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통행이나 주변 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공원, 천변 등에서만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다.

푸드트럭 창업자는 조례에서 지정한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에 허가를 받은 뒤 해당 지자체에 사용 승인을 하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광주시와 5개 지자체에서 푸드트럭 존으로 지정된 곳은 동구 3곳, 서구 4곳, 남구 1곳, 북구 1곳, 광산구 1곳 등 10곳이다.

동구는 총 41대가 남광주 밤기차야 시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며, 서구는 61대의 푸드트럭이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그 주변 공원과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남구와 북구, 광산구는 사직공원과 우치공원, 황룡진수공원에서 각각 1대씩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푸드트럭 창업 초기에는 다양한 지원도 이어졌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1인당 4,000~6,000만원의 창업자금과 9대의 차량을 지원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도 5,000만원 이내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2018년부터 지원이 모두 끊겨 행정의 지마져 퇴색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업 지역도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공원 등으로 제한해 정착 현장에선 헛바퀴만 돌고 있다.

상인 오 모씨(34)는 “처음에 방송에 나오면서 푸드트럭 창업이 붐이 일어났을 때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모두 끊긴 상태이다”라며 “푸드트럭 존도 시민들의 발길이 뜸한 공원 안쪽 등에 제한돼 문을 열면 적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상인은 “타 시·도의 행사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려고 해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옷돈을 주고 장사를 해야 한다”면서 “광주에서 진행되

는 행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푸드트럭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해주지 않고,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박 모씨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푸드트럭은 자영업자의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영업장소도 부족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장소를 옮기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해 별이 사원찮았다. 오히려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유동인구를 찾아 자유롭게 자리를 옮겨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이 부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2016년 조례 제정 당시 주변 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을 찾아 보니 장소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주변 상권과 갈등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어디든지 신청하면 장사가 가능하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9~23	흑산도	15~20
담양	10~24	구례	9~24
화순	10~24	곡성	7~23
영광	9~22	완도	13~24
함평	10~24	강진	9~24
무안	10~22	장흥	9~24
영암	8~24	해남	8~24
진도	10~22	고흥	9~23
신안	11~23	보성	8~23

일출 06:34 일몰 18:05
월출 16:38 월몰 02:55

목포	만조 00:04 12:15	여수	만조 07:11 19:43
	간조 05:38 17:38		간조 01:17 13:11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여수 교동·광주 쌍촌동 노인 교통사고 최다

전남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여수 교동이고, 광주는 서구 쌍촌동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 노인보행자 사망사고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지역 경찰과 지자체는 철저한 분석 및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광주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3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2건 이상) '보행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남 26곳, 광주 20곳이다.

전남 사고다발지역 26곳 가운데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여수 교동 조은

한의원 부근 도로로 지난해에만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다.

광주는 서구 쌍촌동(화정동) 대주피오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9건의 사고가 발생해 지역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장소로 지적됐다. 전국 사고다발지역 가운데 9번째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광주 사고다발지역 20곳에서 발생한 노인보행자 사망 사고는 전체 노인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46.4%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국에서 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순으로는 ▲서울(116곳) ▲경기(94곳) ▲부산(59곳) ▲경남(36곳) 등이다. /고광민 기자



은행나무 열매 수거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던 9일 광주 도심의 가로수인 은행나무 열매가 방치돼 썩으면서 악취를 심하게 풍겨 민원이 발생하자 구청관계자들이 쓸어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 고령 운전자 사망률 전국 최고

전남지역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망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맞춤형 예산과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일(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한국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다발유형'에 따르면 전남도의 고령 운전자 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당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0.98명보다 2.23배나 높은 수치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촌 지역에 대한 SOC 예산 차별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불러왔고,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관리 방안보다 농촌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찬 기자

‘급식 조리실’ 4년간 산재 2,300건

초·중·고등학교 급식 조리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

고 급식실에서 2015~2018년 총 2,365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학교급식인력당 산재 발생 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조기철 기자

진도 해상서 어선 침수...선원 구조

진도 해상에서 어선이 침수돼선원 14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분쯤 진도 맹골도 서방 9.2km 해상에서 K호(24t·근해유지망)가 이동 중 파도에 휩쓸려 배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선박 갑판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 14명을 구조했다.

K호는 지난 5일 목포 동명항에서 출항해 가기도 남방 인근 해역에서 조업 후 목포로 회항하던 중 높은 파도가 갑판을 덮치면서 선박 우현 선수부터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목포=김동규 기자

순천시 음주운전 사고...차량 화재

9일 오전 12시51분께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도로에서 A씨(37) BMW 차량이 전신주를 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이 불에 탔으며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실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